

(2) 죽변항

죽변항은 울진의 북단에 있으며, 죽변등대는 동해를 운항하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균 8톤급 소형선박 200여 척이 드나들 수 있으며 오징어를 비롯한 울진 대게·문어·새우·쥐치 등이 주로 잡힌다.



<그림 31> 죽변항

(3) 사동항

1971년 12월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사동항은 동해 중부의 죽변항과 후포항의 중간에 있으며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어업 활동 근거지로서 기본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주변에 불영사계곡, 백암온천 등 많은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어항이라 할 수 있으며 오징어를 비롯하여 방어, 문어, 쥐치, 대게 등이 주로 잡힌다.

제3절 지역 축제

1. 울진국제대게축제

울진국제대게축제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매년 3월에서 4월경에 울

진대게를 홍보하는 향토 축제이다. 2000년 처음 개최되었던 울진대게축제는 청정의 깨끗한 울진의 이미지와 지역 최고의 특산품인 울진대게의 홍보를 위해 매년 개최됐으며, 다채로운 관광객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로 지역민들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울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며, 전통 민속놀이 계승 발전으로 울진의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울진의 바다가 살아 숨 쉬는 해양 문화 창출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며, 고부가 가치의 특산품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울진군 후포항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처음 개최될 당시에는 개막 행사로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해군·해병], 용왕제, 용선 춤 놀음, 띠뱃놀이, 송신제, 단축마라톤[어업인, 초·중·고생 포함],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 시연 등이 있었다. 공연 행사는 축하 공연[TBC 방송, 울진대게축제 2000 축하소], 울진대 게콘서트[Rock Group·국악관현악·가수],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풍물패[길놀이·뒤풀이]의 풍물놀이가 있었다.

군민 참여 행사는 회 썰기 대회, 울진대게 줄당기기[여성], 대개 무게 알아맞히기, 향토 음식 솜씨 자랑, 큰 대게 포획대회[장외], 해녀수산물채집대회[장외], 대개 자망 짜기, 울진대 게 퀴즈, 월송큰줄당기 등이 있었다.

매년 이와 비슷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렸던 제6회 축제에서는 첫째 날에 개막식, 게를 잡아라, 물속 줄 당기기, 해군군악대 공연, 경북도립국악단 공연, 이동예술대학 운영, 연예인 축하 공연, 불꽃놀이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바다의 향이 있는 건강 마라톤, 울진대게 김밥 말기, 게 뚜껑 쌓기 대회, 울진대게 및 해산물 요리 시연, 어린 넙치방류 및 선박 무료시승, 월송큰줄당기, 페이스페인팅, 미스 경북 선발대회 등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울진대게 줄당기기, 게를 잡아라, 울진대게 경매전, 대개 사랑 작은 음악회, 한마음 가요제, 폐막식 불꽃놀이 등이 있었고 상설행사로는 울진대게전시관 운영, 십이령바지게꾼 키다리 퍼포먼스, 땅배 노젓기대회 및 요트페레이드, 울진대게 요리 무료시식, 울진대게 에어바운스, 모내기 체험, 서예작품 전시회, 신석기 유물 사진 전시회, 울진 특산물 자율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2008년 행사부터 ‘울진국제대게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열렸다.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대게축제집행위원회 와 (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학술 행사·전시와 경연 행사·개막 행사·공연 행사·참여행사·특별행사·부대행사가 있었다.



<그림 32> 제3회 울진진대게축제



<그림 33> 2016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16년 행사부터는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축발위]가 ‘201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주관하였다.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는 2015년에 출범하여 위원장은 남효선, 부위원장은 권두현이고 대학교수, 축제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울진금강송이축제

울진금강송이축제는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송이버섯 축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송이가 자라는데, 그중 울진군은 전국 최대의 금강송 송이 생산지이다. 울진송이는 태백산맥을 따라 자생하는 20년 이상 곧게 자란 금강송 숲에서 금강송의 기운을 받고 자라 독특한 향기와 맛, 영양이 풍부하다.

백두대간 태백 준령에서 생산되는 울진송이는 전국 최대의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새천년을 맞아 이러한 울진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 특산물로 자리매김 함과 동시에 주민 소득 증대와 군민 화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울진군 주최로 울진군 산림 조합이 주관하여 200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덕구온천 광장에서 제1회 울진송이축제를 개최하였다. 사업비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주요 행사는 산신제에 이어 농악놀이, 송이요리 시식회, 송이모형 만들기, 송이품평회, 송이채취 체험, 송이요리경진대회, 송이 생태 관찰, 분재 및 목공예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송이 전시관에서는 송이에 대한 효능, 선별 요령, 성분, 요리법, 분포도, 생산 현황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연예인 축하 공연, 장기자랑, 울진전국농산물품평회 및 토론회, 송이판매장터, 농특산물판매장, 송이전시관, 송이요리 및 향기 체험 등이 있다. 참여 및 상설행사에는 송이채취 체험, 송이생태 관찰, 전국송이품평회, 송이요리대회, 울진송이·금강송 전시, 송이향기체

험관, 송이생태관찰장, 송이맛 다섯배즐기기, 울진송이판매장터, 울진친환경농산물판매장터, 임산물판매장터, 천연염색 체험, 울진송이풍선아트체험, 친환경농업관·홍보관 운영, 식용버섯전시, 송어맨손잡기체험, 승마체험 등이 있다. 울진송이 채취체험은 울진송이축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6회 울진송이축제는 울진금강송송이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2007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울진친환경엑스포공원에서 제31회 성류문화제와 함께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풍년기원 지신밟기, 전국송이품평회, 송이경매전, 송이무게 알아맞히기, 송이진품명품, 울진금강송송이 보물찾기, 송이향기체험, 송이요리 먹거리장터, 축하 공연 등이 열렸다. 체험 행사로는 울진금강송송이 따기, 황금메뚜기잡기, 친환경고구마 캐기 등이 진행되었다. 상설 행사로는 울진금강송 사진전시, 송이생태관찰장, 송이차 시음, 울진송이 판매장터, 울진친환경농특산물 직판장터 등이 열렸다. 울진금강송송이 따기 행사는 울진군 북면 송이산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제9회 울진금강송송이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울진군 주최, 울진군 산림조합 주관으로 왕피천 엑스포공원과 구수곡자연휴양림 앞 송이산에서 개최되었다. 주요행사로는 송이채취체험, 송이생태관찰, 전국송이품평회, 송이요리대회, 송이향기체험장, 송이요리체험장 등이 진행되었다.

인근 관광지로는 성류굴, 불영사, 드라마세트장, 망양정, 월송정, 구수곡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3. 평해 남대천 단오제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에서 해마다 단오를 맞아 벌이는 지역 축제이다. 이 축제는 평해읍을 거쳐 동해로 흘러가는 남대천변의 체육공원과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데, 평해읍에서 주최하고 평해읍청년회가 주관한다. 축제는 읍력 5월 4일 단오 전날부터 시작하여 이틀간 열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단오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평해읍은 울진군에 속해 있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울진군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평해군으로 어엿한 하나의 고을이었다. 이 지역은 추석보다는 단오를 중히 여기는 단오문화권에 속하는 곳으로 평해의 읍치(邑治)에서 벌이는 단오제는 고을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평해의 단오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력을 잃고 점차 사라져 가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평해읍청년회에서 뜻을 모아 다시 시작하였으며 2005년 현재 제22회 단오제가 열렸다. 애초에는 씨름과 그네 같은 놀이 중심으로 소박하게 축제를 벌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월송큰줄당기와 기줄당기기 같은 전통 놀이와 다양한 연행 종목을 수렴하여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5년 6월 11일~12일에 걸쳐 열린 단오제 행사는 영상홍보[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단오제], 시가행진, 제천의례, 개회식, 월송큰줄당기, 창포 머리 감기, 길놀이, 특공무술, 리동별 웃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기줄당기기, 신라국악예술단공연, 합기도시범, 한터울사물패공연, 한마음잔치, 천연염색체험, 짚공예체험, 장승·솟대만들기, 떡매치기, 농경문화체험, 한지 공예전시, 단오관련사진전시, 서예백일장, 지역특산물홍보장, 울진군씨름왕선발대회, 울진 군민노래자랑, 무속제[굿], 연날리기, 풍물야시장 등으로 모두 24개 종목이 펼쳐졌다.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 가운데 평해 지역의 전통민속은 월송큰줄당기기와 기줄당기기이다. 월송은 평해읍에 속하는 한 마을로 조선 시대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는 월송진(越松鎮)이 있었던 곳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이 마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큰 줄당기기를 벌였는데 월송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마을 줄의 특징은 각 편이 용[암줄]과 범[수줄]을 상징하는 한편, 암줄의 줄목에는 원삼족두리로 가장한 신부가, 수줄의 줄목에는 사모관대로 가장한 신랑이 올라탐으로써 두 줄을 결합하여 줄을 당기는 행위가 곧 남녀의 성적 결합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편 기줄당기기는 바다 생물인 게의 행태를 모방하여 벌이는 줄당기기다. 기본형은 두 사람의 부녀자가 목에 줄을 걸고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 뒤 앞으로 나아가 끌려가는 쪽이 지는 놀이인데, 놀이의 재미를 위하여 두 사람씩 겨루는 형태와 다섯 사람씩 겨루는 형태로 변화시켜 전승하고 있다.

초기 남대천단오제는 단합대회 성격이짙은 체육대회였다. 그러나 외부 단체의 공연이 증가하면서부터 관광행사로 성격이 변하였다. 최근에는 전 주민들의 참여와 볼거리를 보장한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십이령바지게놀이, 월송큰줄당기기, 기줄당기기가 지역전통문화로 소개되어 주요 프로그램으로 등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대응하고자 한 울진군, 울진문화원, 평해읍청년회의 각기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등장한 지역전통문화는 지역 언론사 등에 의해 전통성을 부여 받아 남대천단오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문화로 소개된다.²¹³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옛 평해 고을에 전승되어 오던 단오제의 전통을 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줄당기기와 같은 다른 세시 전통민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예 행사를 포함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재창출한 지역 축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213. 박동철, 2010, 「남대천단오제」의 성격변화와 지역전통문화의 의미화 과정』『실천민속학연구 15, 실천민속학회, 197쪽



<그림 34> 제31회 평해 남대천 단오제



<그림 35> 성류제

4. 성류문화제

성류문화제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매년 10월경 성류굴을 비롯한 관광 울진을 홍보하는 향토 축제이다. 성류문화제는 1977년 10월 13일에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울진군은 이 행사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군민들의 단합을 도모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울진군을 홍보하고 있다.

성류문화제는 천연기념물인 성류굴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군민 종합 축제의 취지로 처음 개최되었다. 제1회는 ‘향토문화제(성류제)’라는 이름이었는데 현재의 ‘성류문화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제1회 향토문화제는 1977년 10월 13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학생백일장·한시백일장·시조경창대회·고적대 시범·농악 경연·향토문화의 밤 등이 진행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농악 놀이를 비롯한 월송큰줄당기기·풍어제·그네뛰기 등과 각종 체육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제30회를 맞이한 성류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성류굴 앞에서의 성류제향을 시작으로 서예·미술·꽃꽂이·퀼트·종이접기 등의 전시회를 열었고, 학생백일장·서예·사생대회·동해별신굿·울진봉평신라비 서예대전 시상식이 있었으며, 전국 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창 대회와 울진군 민속 장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부대 행사로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 ‘2006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송어 맨손잡기’ 체험은 내·외지 관람객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제34회 성류문화제는 성류굴 입구와 울진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울진군 주최로 진행되었고, 주요 행사로 제8회 울진봉평신라비 전국서예 대전, 백일장·서예·사생·장기 대회, 미술·사진·꽃꽂이·도자기·한지공예·목공예·야생화 전시, 도자기 물레 체험, 전통예절·전통차 시음, 소원지 쓰기/가훈(명언, 명구) 쓰기, 문화공연 등이 마련되었다.

5. 죽변항 수산물축제

청정 해안에서 자란 수산물의 생생함, 푸짐한 먹거리와 즐거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제1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2019년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개최되었다.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군의 죽변항은 국가 어항이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갑각류나 해조류가 풍부하며, 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통해 청정 동해의 싱싱한 해산물의 맛은 물론이고 연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2019년 처음 축제가 열린 죽변항은 남쪽으로 영덕군과 북쪽으로 삼척시와 인접한 울진 지방의 대표적인 역사 깊은 항구도시이다.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제1회 죽변항수산물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를 준비했다.

이 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 축제와 맛, 가슴으로 품다’를 주제로 울진의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죽변항을 알리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이 쉽게 죽변항이 생산하는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를 푸짐하게 맛볼 수 있도록 ‘먹거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전통 토속음식을 비롯하여 유명 BJ의 실시간 먹는 방송, 풍어제(별신굿), 수산물 마술공연, 짹쓸이 공연, 켈라그라피퍼모먼스, 경북얼라이언스 공연 등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과 옛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에게는 향수를 일깨워주고, 바닷가 음식을 처음 접해보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줄 토속 음식점을 운영 꽁치지느러미 국수, 고등어 추어탕, 가자미식해, 죽변 젓갈 등 전통 음식이 주는 깊은 맛을 선사한다. 또한, 죽변항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 회 썰어주기, 구이마당, 죽변항 수산물경매 깜짝 할인이벤트의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특히 경매를 통해 진행되는 ‘제1회 죽변항수산물 깜짝경매 할인이벤트’는 당일 입찰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죽변항의 수산물을 구매할 기회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축제는 취타대 퍼레이드, 십이령 바지게꾼놀이를 시작으로 대북 식전공연, 개막을 알리는 수산물 박 터트리기, 초청 가수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달군다. 축제위가 이번 죽변항 수산물축제에 선을 보인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는 옛 조상들의 지역 농·수 특산 물 판로 개척의 애환과 삶. 축제의 놀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지게에 지고 북면 흥부장터에서 봉화 춘양장까지 12 고개를 넘나들던 보부상들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죽변항 수산물축제’에는 수산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수산물 맨손 잡기 체험, 상자 속 수산물 맞추기, 수산물 중량 맞추기, 울진 참문어 볼링체험, 어린이 낚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며 품질 좋은 수산물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벤트 중의 하나는 수산물 깜짝 할인 경매이다. 축제장 보조 무대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깜짝 할인이벤트를 통해 죽변항 수산물을 입찰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축제장에서 직접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접근성과 참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공연이 이어진다. 주민들은 십이령바지게놀이 재연과 풍어제(별신굿)공연 통해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만들어간다. 또한, 울진 공연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울진군 연예인협회와 울진 국악협회 공연, 지역 출신 가수들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만날 수 있다. 울진군은 사흘간의 축제 기간 내내 외지 관광객과 주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풍부한 각종 수산물로 만든 울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토속음식을 선보인다. 또한, 죽변의 관광명소인 100년 역사의 죽변등대와 하트해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등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6. 울진뮤직팜페스티벌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이 2007년부터 열고 있는 음악 및 스포츠 축제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은 울진을 알림과 동시에 주민 화합 및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8월 10일~8월 12일 제1회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문화 행사에서는 ‘푸른 바다! 푸른 솔! 푸른 하늘! 콘서트’라는 주제로 음악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군민노래자랑 열렸다. 스포츠 행사에는 윈드서핑대회, MTB프리라이딩대회,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가 열렸다. 군민노래자랑에서는 경연을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행사는 문화 행사와 스포츠 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야간에 진행되는 문화 행사는 축하 공연, 노래자랑대회, 영화 상영 등이 개최되고, 주간에 진행되는 스포츠 행사는 윈드서핑, 스노클링, 마라톤대회, 족구, MTB 등이 개최된다.

제2회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은 2008년 8월 1일~8월 3일까지 3일간 울진친환경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8월 1일에는 식전공연으로 대북 공연이 열렸고, 개막식에 이어 주요 행사인 쇼! 음악 중심 1회차 녹화가 진행되었다. 후에 불꽃놀이와 해변영화상영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 행사는 윈드서핑 및 스노클링 체험 행사가 열렸다. 8월 2일에는 비보이 공연에 이어 주요 행사인 쇼! 음악중심 2회차 녹화가 진행되었다. 후에 불꽃놀이와 해변영화상영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 행사는 윈드서핑 체험, 울진해변마라톤대회, 울진에너지팜족구대회, 울진MTB프리라오가 상영되었다. 스포츠 행사는 윈드서핑 체험, 울진에너지팜족구대회, 울진MTB프리라

이당 행사가 열렸다. 2011년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은 제5회로 2011년 7월 30일~7월 31일까지 2일간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은 제13회로 7월 26일~7월 27일까지 2일간 울진엑스포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그림 36> 2008 울진뮤직팜페스티벌

7. 울진백암온천축제

백암온천관광특구 내에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암온천축제는 지역 청년들에 의해 199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사 내용으로는 온천수신제와 산신제, 연예인 초청공연과 사물놀이, 친환경 농산물 시식과 온천수를 이용한 물놀이장 체험과 백암온천 천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 운영 등이 있다.

백암온천축제의 공식 행사는 개막식·백암산신제·온천수신제가 있다. 공연 행사는 비보이 공연, 북한예술단 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일렉퓨전, 통기타 공연, 댄서팀 공연 등이 있다. 그 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에는 백암스파로드, 백암스파클존, 친환경 농산물 무료시식, 천연 염색, 다도 체험, 스파웰빙기네스 등이 있다. 특별행사로는 어린이 난타, 매직 쇼 공연, 불꽃 퍼포먼스, 풍선 아트, 미술 전시회, 아이스카빙, 풍선 아트가 있으며 부대 행사로 백암산 자유산행, 사생대회 등이 열린다.

제13회 울진백암온천축제는 200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렸는데, 2008년 초에 제13회 울진백암온천축제 대행사 선정 제안 공모를 공고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울진백암온천축제집행위원회와 함께 일할 분야별 대행사를 선정하였다.

8.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경상북도 울진군 주관으로 친환경농업 현장과 제품 첨단 기법의 전시, 관람객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진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새롭게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제 행사이다.

울진군은 국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하고, 21세기 울진군의 미래를 주도하는 첨단 생명 산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하였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심은 면적 5,815ha 중 604ha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된 2005년에는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면적을 경지 면적의 27%인 1,500ha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경지 면적의 15%인 880ha로 확대하는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울진군은 2003년 전국친환경농업우수마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4년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 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시·군 단위 1위의 친환경농업 실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을 무대로 펼쳐진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2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친환경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 산업’을 주제로 열린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관련 시설 투자, 울진군 자체의 재정 투자, 관광객 소비 지출 등 관련 산업 분야에 파급됨은 물론 타 산업에도 발전의 계기를 가져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친환경농업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창출, 지역민의 화합, 지역 분위기 개선 등 비경제적 파급 효과는 추정될 수 없을 만큼 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가져온 총체적인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정량 분석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훨씬 상회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외의 친환경농업 저명인사들은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농업이란 주제로 관람객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준 수준 높은 행사였다고 고무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직 친환경농업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 농업이 WTO, FTA 등 국제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로와 비전을 제시하였고, 특히 일반 관람객에게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물론 농업이 그동안 식량 산업에서 미래 산업·생명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일깨워 준 행사였다.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후에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2009년 7월 다시 울진에서 개최하게 된다. 2009년은 엑스포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특성을 살려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 시설들이 서로 연계됨으로 더욱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곤충생태체험학습관은 국비, 도비와 군비 등 60억 원을 들여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내 6천여 m^2 부지에 착공해 2009년 7월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이전에 완공했다. 곤충생태체험학습관에는 곤충생태전시관, 종합생태관 등 사계절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곤충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체험관이 설치되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가족 중심의 테마관광 공원으로 조성했다.

곤충생태체험학습관이 조성되면 국내의 대표적인 곤충생태공원으로 학생들의 체험 학습은 물론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울진군에서는 곤충생태체험학습관을 곤충 사업을 접목한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의 개발과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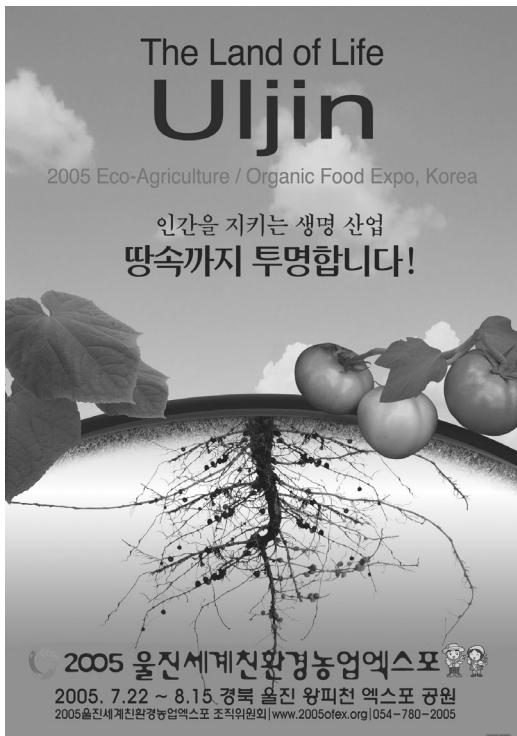
울진군은 해양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관광 홍보를 위해 울진군 근남면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내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아쿠아리움인 해양생태관을 조성하고자 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최근 해양생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에 이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용역이 끝나면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이전에 완공했다.

해양생태관은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내에 전시관 1,650 m^2 와 실내 수조 용량 700t 규모의 수족관을 갖추고 왕돌초 여행, 왕돌초 비밀, 울진대개, 열대 바다, 바다 목장 등의 주제별로 100여 종 5천여 마리의 어류가 전시되었다. 이와 함께 인근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 왕피천 하천 생태 등을 총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과학교육체험관을 건립했다. 연호공원 내에 건립될 과학교육체험관은 사업비 117억 원을 들여 부지 9,917 m^2 에 총면적 1,980 m^2 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 준공했다. 과학교육체험관에는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됐다는 빅뱅론의 근원이 되는 ‘코스믹 에그’의 원시적 형태를 형상화하고 금속 소재로 첨단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해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벤트플라자, 진입 마당, 새오름길, 야외 체험장, 야외 학습장, 산책로, 전망대 등 부대 시설을 설치했다.



<그림 37>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그림 38>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포스터



<그림 39>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9. 울진원자력문예대전

울진원자력문예대전은 울진원자력문화진흥회가 해마다 열고 있는 문학 행사이다. 울진원자력문예대전은 울진원자력문화진흥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원자력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자력 사업과 지역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대부터 개최되었다. 후원은 경상북도 울진교육청·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행사는 울진지역 내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부문과 그림 그리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상은 대상·고등부·중등부·초등부로 나누어 선정된다. 대상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한다. 고등부와 중등부는 최우수상·우수상·가작을 선정하고, 초등부는 최우수상·우수상·가작·장려상을 선정한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품과 도시락, 음료가 제공된다. 입선작은 대전전기에너지관과 관련 홈페이지에 전시된다.

2007년 11월 1일 울진원자력문화진흥회는 한울 원자력 홍보관 일원에서 울진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 울진원자력문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글짓기 부문 대상은 고등부 김소라, 중등부 임나비, 초등부 주현실이 수상하였고, 그림을 그리기 부문 대상은 고등부 송푸름, 중등부 김미리, 초등부 장연주가 각각 수상하였다.

10. 월송큰줄당기기

월송큰줄당기기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서 1940년 초까지 행해지던,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편을 나누어 큰 줄을 당기어 승패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설달 초순이 되면 아이들이 짚을 모아 얘기줄 당기기를 하는데, 이를 배경으로 설달 보름 대동추[동네 회의]에서 큰 줄당기기를 결정한 후 행한다.

큰 줄당기기에 사용되는 줄은 초군들이 주도하여 만드는데, 각 가정에서 일정 분량의 짚을 내기도 하고,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부잣집에서 내는 짚으로 대부분 충당되었다. 짚을 가장 많이 내는 집안은 논 열 마지기[1,500평] 분량의 짚을 낸다. 모든 짚을 마을 공터에 넓게 펴 놓고, 부녀자들이 물을 이고 와서 골고루 뿌리는데 이것은 줄을 만들 때 짚이 농눅하여 잘 다룰 수 있게 하고 짚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어느 정도 물이 뿌려진 후 짚을 틀기 시작하는데, 벗짚을 두어 움큼 모아서 그 크기의 세 가닥을 서로 맞받아가며 계속 꼬다. 줄잡이가 줄 끝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잡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세 사람이 서로 오른쪽으로 짚을 틀어 나가는데, 이때 짚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세 명이 필요하므로 최소 일곱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줄 틀기를 행한다.

줄을 트는 데는 약 6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정월 초나흘 경에 시작하면 초열흘쯤에 끝나게 된다. 나무에 걸어서 틈 줄은 대개 넓은 논바닥에 늘어뜨리는데 약 50에서 60가닥 정도로 논바닥을 뒤덮는다. 펴 놓은 줄에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소금물은 짚의 강도를 높여준다.

다음으로 펴 놓은 줄을 1m 정도의 폭으로 촘촘히 엮는데 이를 줄 엮기라고 한다. 줄을 말기 전에 각각의 줄들이 고르게 엮어져야 줄의 강도가 높아지고 모양새도 좋아진다. 어느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줄을 말 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도가 불균형을 이루어 끊어질 염려가 있다.

줄 엮기가 끝나면 명석을 말듯이 펴 놓은 줄을 만다. 줄을 말아만 놓으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말아 놓은 줄의 양쪽에 사람들이 붙어 서서 각기 반대쪽으로 줄을 밀어서 다시 한번 더 마는데,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줄머리 만들기이다. 줄을 당길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줄머리 부분인데, 양쪽 줄은 줄머리끼리 연결되므로 양편이 당기는 힘이 여기에 집중되며 줄머리가 터지면 패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나기에 심상이다. 따라서 각 편은 줄머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말아 놓은 줄은 나중에 줄머리가 될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곱치게 된다. 완성된 한쪽 줄의 길이가 100m가량 되기 때문에 말아 놓은 줄은 약 200m 정도가 된다. 이 긴 줄이 반으로 곱쳐지는 것이 줄머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벌림줄을 단다. 벌림줄은 줄당기기 할 때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줄의 몸체에 별도로 묶어 놓은 줄을 말한다. 벌림줄은 줄의 몸체에 약 1~2m 간격으로 사람들이 잡아당기기에 편하도록 매단다.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정도이기 때문에 벌림줄은 약 50~60개 정도가 필요하다. 벌림줄의 굵기는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정도이며, 길이는 줄의 몸체를 한 바퀴 감고 좌우로 2~3m 정도 남는 정도이다.

이렇게 완성된 월송 큰 줄의 규모는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이상 되며, 굵기는 어른이 걸터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이며, 둘레가 약 1.5m에 달한다. 왕대나무를 쪼개 넣어 단단하게 만든 줄머리는 가마니나 거적 등으로 감싸고, 새끼줄로 촘촘하고 단단히 감아 장정 7~8명이 매달려야 들 수 있는 무게다. 머릿줄의 지름은 암줄이 약 2m 정도이고, 수줄은 1.5m 정도이다.

완성된 줄은 줄을 당기는 날이 올 때까지 며칠간 넓은 논바닥에 늘어뜨려 놓는다. 줄은 보통 정월 열엿새나 열이레에 당기는데 늦어도 정월 스무날 안에는 당겨야 한다. 이때까지 각 편에서는 매일 밤 줄 주위에 불을 밝혀놓고 줄을 지킨다. 줄당기기의 편은 기본적으로 한 마을에서 윗마와 아랫마로 구분된다. 월송리의 달효마을에서는 아랫마와 윗마로 나누며, 양쪽 줄은 각각 용과 범을 상징하게 된다. 아랫마에서는 용줄로서 암줄이 되며, 윗마는 범줄로

서 수줄이 된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에서는 줄당기기 당일이 되면 농무회라 불리는 풍물패가 결성된다. 줄당기기 시간이 다가오면 양편은 줄고사를 지내는데, 줄머리 옆에 간단한 상을 차려 놓고 축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고 나면 각 팀의 농무회는 범기와 용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골맥이 할 배당과 수구당인 할매당에 가서 고한다.

줄당기기 직전이 되면 신부 복장을 한 암줄의 줄도감과 신랑의 복장을 한 수줄의 줄도감의 지휘 아래 암줄과 수줄의 결합을 시도한다. 암줄과 수줄이 결합하면 홍창목이 꽂히게 되고, 바로 줄당기기가 시작된다. 승부는 단판 승부로 끝나며 암줄이 이기면 쌀 풍년이 들고 수줄이 이기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완성된 줄을 ‘줄이 쟁쟁 운다’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줄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신격화된 대상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줄에 접근할 수 없는데, 밤에 횃불을 밝히고 줄을 지키는 이유 중 하나도 여성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여자가 상대편의 줄에 바늘을 꽂아버리면 줄당기기할 때 그 부위가 떨어져 줄이 떨어진다고 하여 여성들의 접근을 막는다. 부득이하게 줄 가까이에 여자가 가야 한다면 절대로 줄을 타 넘지 못하고 줄머리나 줄꼬리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역시 여자가 줄을 타넘으면 줄이 끊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월송큰줄당기기는 1940년대에 중단되었다. 현재는 울진에서 ‘울진대계축제’, ‘평해 남대천 단오제’에서 축제 행사로 시연되고 있다.



<그림 40> 월송큰줄당기기[2015 울진대계와 붉은대계 축제에서 재현]

11. 흥부만세제

흥부만세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이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울진군에서는 동년 4월 10일 매화만세운동에 이어 4월 13일 오후 1시를 전후해 북면 흥부장터에서 오일장을 맞아 주민들과 장꾼들이 대규모로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당시 만세시위운동으로 인해 주동자로 지목된 전병항·남병표·김일수 등 3인이 징역 7개월을, 황종석·홍우현·김기영·김도생·박양래·김봉석·김재수·이상구 등 8명이 각각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흥부만세제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쳐 항거한 울진군민의 만세시위운동을 기리며,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4월 13일 개최되었다.

2005년 제9회 흥부만세제에서는 일제의 만행에 항거한 선조들에 대한 추념식을 시작으로 일본독도망언규탄대회, 만세운동을 재현한 거리행진, 산다향예술촌의 「동해안의 소리」 공연, 학생백일장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7년 제11회 흥부만세제에서는 애국지사 장영인의 만세삼창과 일본의 침략만행 및 독도망언규탄대회, 4·13만세운동 거리마당 등을 재연하였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극화한 마당극 「암태도」가 공연되었다.

흥부만세제는 북면독립정신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북면청년회가 주관한다. 기미년 [1919년] 전국적으로 3·1 독립 만세가 확산하여가고 있을 때 울진 독립 만세는 매화 장날에 이어 흥부장날 4월 13일 오후 1시경 북면 흥부장터에서 대규모의 독립 만세가 벌어졌다. 이 곳 독립 만세는 11일 매화독립 만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전병항, 남병표 등이 주동하고 흥부의 김일수·김광수·황종석·홍우현·김기영·김도상·박양래·김봉석·김재수·이상구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날 사용한 태극기는 전병항과 매화 독립 만세에 참여했던 남병표가 다니던 지장감리교회에서 비밀리에 만들었으며 교인 대부분이 흥부장터 독립 만세에 참여했다. 이날은 흥부장날이라 삼척, 호산, 죽변, 울진 장꾼들까지 가세하였다. 장터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저녁까지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일본 헌병들이 출동하여 주동자를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구금되고 옥고를 치렀다.

자주독립 인류 평등 민족자존의 3·1정신이 길이 전승되어 향토애와 나라 사랑의 진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칠보산 구 장터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지역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고자 1996년 ‘흥부장터 독립 정신 보존회’를 구성, 초대회장에 유족대표인 초대군의원 전인식이 추대되었다. 2021년부터는 장현겸이 2년 임기의 북면 독립정신 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 후 탑과 비가 있는 칠보산 구 장터는 장소가 협소하여 김언륜 장군의 유적이 있는 흥부만세 공원[북면 나곡리 84]로 2012년 이전하였다. 새로 조성된 흥부만세공원 조형물은 전국에서 제안 공모하여 제작 설치

되었다. 매년 이곳에서 흥부만세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89주년 4·13 흥부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제12회 흥부만세제가 2008년 4월 14일 흥부장터와 울진 원자력 흥보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4·13 흥부만세제에서는 울진 3·1 운동 유족회장 전인식의 「흥부독립선언문」 낭독과 애국지사 장영인의 만세삼창, 만세제 기념시 낭송에 이어 흥부독립만세제 거리마당이 재연되었다. 그 외에도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술래야 술래야」가 공연되었고, 초·중학생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 4월 13일에는 흥부독립만세기념탑광장과 북면면민광장 및 시가지에서 제92주년 4·13 흥부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흥부만세제가 열렸다. 흥부독립만세제 거리마당 재연, 기념공연 마당극, 특별공연 군사례 공연, 학생체험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그림 41> 2016년 4·13 흥부만세제



<그림 42> 4·13 흥부만세제가 열린 흥부만세운동기념공원

12.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와 강이 만나는 왕피천 하구와 전통적인 기법으로 토염[바닷물을 염판에 채워 일주일 동안 자연증발 시킨 뒤 남은 염수를 솔에서 10시간 정도 끓여 만든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소금]을 생산했던 장소인 염전해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유일의 삼욕[시원한 해수욕, 마음마저 상쾌해지는 산림욕, 뜨끈한 온천욕]의 고장, 생태관광도시 울진에서 2010년부터 개최되었다. ‘바다, 숲, 온천’ 울진에서 여름을 담다’를 주제로 개최된 축제는 규모는 작지만 축제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²¹⁴

214. 배만규, 2018, 「축제 방문객의 지리적 세분화와 심리적 세분화에 의한 표적시장 도출에 관한 연구 :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60, 한국관광산업학회, 89쪽

13. 울진종합예술제

울진종합예술제는 울진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매년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시행사는 미술·서예·사진·공예가들이 참가한 작품들이 울진연호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전시하였다. 공연 행사는 울진연예인 축하공연과 국악협회축하공연, 동아리페스티벌, 제3회 주부가요제 등을 진행하였다[2019년 기준]. 울진종합 예술제는 지역문화 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울진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이다.

14.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학교수, 축제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남효선, 부위원장은 권두현이다.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그 하부조직으로 축제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지역 축제의 발전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6년 3월 울진대개와 붉은대개축제를 시작으로 금강송송이축제, 백암온천축제, 울진워터피아페스타 등 울진군의 대표 4개 축제를 운영하였다. 종전의 관 주도 축제 운영 방식을 전면 지양하고 주민과 지역사회단체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판을 운영하는 ‘주민주도 참여형’ 축제로 울진군의 축제판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특히 울진의 대표 축제가 대부분 울진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먹거리형축제임을 반영해 ‘축제를 통한 2차 가공품과 축제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기틀을 구축하였다. 또 지역의 금강송울진한우협회와 후포지역 붉은대개 가공업체와 연계해 축제 먹거리 등 2차 가공품 개발을 통해 축제산업화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이동근